한화투자증권

2025년 12월 15일
산업분석

ESG & Transition

이사회 현황 점검 :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장기 재임현황

Analyst 박세연 shannon@hanwha.com 3772-7406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장기 재임은 독립성 훼손을 유발할 수도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에 따르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7년 이상 장기 재임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다. OECD, 국내외 지배구조 학술논문은 사외이사 재임 초기에는 전문성 향상을 통해 이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독립성 약화 효과가 커지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장기 재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배구조와 모니터링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장기 재임 사례

KOSPI 816개사와 KOSDAQ 1,716개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39,054명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 중 7년을 초과해 8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기업은 10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105개사에서 장기 재임 중인 이사는 총 121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8.32년으로 집계되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최장 11년째 재임 중인 사례도 확인된다.

2023사업연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사외이사와 감사는 11개사 1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올해는 1개사가 줄어든 10개사 10명이 11년째 장기 재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10개사는 모두 KOSDAQ 상장사이며, 시가총액 6조 원 규모의 A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들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이번달 말쯤 발표된다면, 장기 재임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집중된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안 반대, 감사위원 교체 요구, 이사회 구조 개선 요구의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기금과 주요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장기 재임을 독립성 훼손 요인으로 보다 명확히 반영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사외이사 풀 다변화, 임기 상한 정비, 평가·재선임 절차의 투명화 등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표1] 국내 전체기업 중 11 년째 장기 재임 중인 사외이사이면서 감사위원(10 개사)

기업명	업종	시총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임기간
A사	제약	7 조 미만	●	11 년 이상
B사	기타자본재	5 천억 미만	●	11 년 이상
C사	소프트웨어	2,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D사	건설,건축제품,건축자재	2 천억 미만	●	11 년 이상
E사	디스플레이장비	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F사	화학	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G사	통신장비	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H사	교육	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I사	제약	300 억미만	●	11 년 이상
J사	기타 자본재	500 억 미만	●	11 년 이상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